

“세계수영대회 성공·현대 완성차 공장 설립 지원” 한 목소리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 무슨 얘기 오셨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광주를 찾아 ‘광주 발전과 광주형 일자리 성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을 비롯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시는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광주형 일자리 등 4건의 현안사업 그리고 20건의 국고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두관 참총은 지방정부상임위원장, 김해영·박주민·박광온·설훈·이형석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경식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김동찬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과 5개 구정당 등 모두 4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새로운 일자리 창출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군(軍)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등 4대 현안에 대해 총괄보고한 뒤 당 차원의 직·간접적 지원을 건의했다.

세계수영대회에는 부족 사업비 295억원

市, 현안 등 24건 국고 요청
“문화전당 등 축소된 예산
이번에 바로 잡도록 노력”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광주형 일자리에 사회적 협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치적 지원을 건의했다. 또 문화중심도시 사업은 특별법 시효 연장(2026→2031년)과 국비지원 비율 상향, 군 공항의 경우 특별법 지원을 통한 국가 지원 확대와 이전 지역에 대한 국책사업 지원을 요구했다.

이어 국고지원이 절실한 시장 현안사업 20건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와 시 요청액, 정부 반영액을 하나하나 설명한 뒤 부족한 예산 958억원의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사업별로는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운영 194억원 ▲첨단 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100억7000만원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17억원 ▲광주 송정~순천간 경전선 전철화 145억원 ▲동광주~관산IC 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100억원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건설 81억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60억원 ▲장애인수련시설 건립 30억원 ▲국립



24일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당과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4억원 등이다. 융합충전소 수소생산시스템 표준화 및 KS인증 체계 구축비 52억원과 물순환 선도시 조성비 33억9000만원, 노사 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비 20억원 등도 건의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광주를 젊은층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광주는 5·16 쿠데타 이후 30년 이상 압박 받아 온 곳으로 이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비 예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광온 최고위원은 “수영대회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예산은 축소 편성되거나 편성 회피된 것들”이라며 “반드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조경식 당 예결위 간사는 “광주형 일자리는 물론 수영대회, 아시아문화전당, 그밖에 현안에 대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형일자리 성공 의지 밝힌 이해찬 대표

“임금과 복지 정책 함께 가야 갈등 풀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4일 광주를 찾아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해 근로자의 주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광주형 일자리’ 성사를 위해 당대표로서 적극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조미의 관심사도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임금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다. 고임금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 임금으로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여러 복지 정책과 함께 임금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 군데 노사 갈등이 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을 자주 봤는데 사회 통합형 일자리를 잘 만들면 복지 일자리와 함께하는 좋은 공동체 만들 수 있다”면서 “사회 통합형 일자리를 만들고 이게 선례가 되면 산업, 창원, 거제, 울산 등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만드는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완성차 공장이 들어설 빛그린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현대차 완성차 공장 예정부지인 빛그린산단을 찾은 이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사회통합형 일자리인 만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사업 성공을 위해 당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만간 매듭을 짓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빛그린산업단지에는 행복·공공임대주택 1000여 채를 비롯해 어린이집, 유치원, 고충센터, 체육시설 등의 시설들이 입주한다”면서 “고충센터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안내와 취업훈련을 지원하고, 체육시설에서는 산단 내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여가활동도 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또 “빛그린산업단지에서 구현될 광주형 일자리는 복지와 생산이 복합된 사회통합형 일자리다”면서 “기업은 임금부담을 줄여 생산비를 낮추고, 정부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고임금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지원책, 현대 완성차 광주공장 설립 새 변수

진입도로 개설·공공임대 1000여채 입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광주형 일자리’ 참여기업과 근로자에게 주거와 도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을 성사시킬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 취지인 ‘광주형 일자리’는 동종 업계에 비해 다소 낮은 임금을 받지만 정부와 지자체, 회사 등이 복지혜택을 늘려주는 게 핵심이다. 이 때문에 임금이 불안한 노동계를 꺼안을 수 있는 ‘최적의 카드’가 복지 혜택이며, 집권 여당이 공개적으로 지원을 약속하면서 노동계의 대화 참여도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24일 광주를 찾은 민주당 지도부가 밝힌 지원책은 크게 행복·공공임대주택 1000여 채와 어린이집, 유치원, 고충센터, 체육시설 등이다. 또 민주당은 광주 완성차 공장 예정부지인 빛그린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통해 ‘사회 통합형 일자리’를 국내 곳곳에 뿌리 내리겠다는 청사진도 이날 내놔다. 현재 광주 완성차 공장의 근로자 초입은 3000만~4000만원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

다. 2016년 기준 국내 완성차 업체 5곳의 연평균 임금(9213만원)의 절반에 못미치는 금액이다. 이에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됐고, 지난 23일 극적으로 광주시와 노동계가 대화에 나서면서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 논의가 재개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주거 등 복지 지원을 약속하면서 향후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노동계의 참여 폭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에 맞춰 빛그린산단에 조성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진입도로 개설은 반길 일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불참으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고, 적정 임금 탓에 연쇄적으로 저임금을 받게 될 하청업체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윤종태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하청 관계를 개선해 고통받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교황에 선물한 성모상은 평화를 기도 하겠지



김은영의
‘그림 생각’

(242) 성모상

두 눈을 지긋이 감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성모마리아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방북 요청을 전달하면서 교황에게 선물했던 한국의 성모마리아상은 지금 바티칸에 남아 무엇을 기원하고 있을까. 아마도 평양에서 평화를 기도할 그날을 염원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

교황에게 선물한 성모마리아상이 화제가 되어서인지 성모상의 작가인 최중태 원로조각가(1932~)에 대한 관심도 최근 덩달아 커진 것 같다. 서울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60여년 이상 조각가로 작업에 매진해온 작가는 한마디로 ‘구도의 길에 세운 선의 모뉴먼트’라고 정의할 만큼 깊은 가톨릭 신앙을 가졌지만 불경에 심취해 부처를 닮은 한국적 예수와 성모상을 탄생시킨 조각가로도 유명하다.

특히 서구 조각의 틀을 벗어나 한국인의 정신과 내면을 성상에 담아내고자 한국교회미술의 토착화운동에 열정을 쏟았던 시기의 작품인 ‘성모상’(2004년 작)은 보기만 해도 어머니의 따스한 얼굴을 마주하는 듯 정겹고 마



최중태 작 ‘성모상’

음이 정결해지는 듯하다. 애초부터 그냥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매양 기도해 온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연상되어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는 작품이다. 조형의 디테일은 생략하되 본질적인 형태에 집중해서인지 얼굴과 손의 강조만으로도 나무처럼 온화하게 서있는 성모마리아의 사랑이 전해진다.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근원을 찾아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예술도 종교도 근원으로 가는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말처럼 예술은 인생의 진리로 향하는 여정 혹은 기원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광주비엔날레 정책기획실장·미술사학자>

2018년 무안공항 직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푸~우~음~

무안 ↔ 양양 취항 기념 항공 특가 77,000원 !!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매주 3회 정기편 운항(화3박4일 / 금, 일2박3일)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기타큐슈 에어텔 3일 299,000원
- 기타큐슈, 뷔브, 유후인 3일 [실속] 399,000원- / [플렉] 499,000원-
- 기타큐슈, 뷔브, 유후인 4일 [실속] 559,000원- / [플렉] 599,000원-

※ 불포함사항: 무안공항 수송 및 기사/가이드 경비

무안 ↔ 나가노 북알프스(마츠모토) 직항 전세기

10월 2일(화) ~ 10월 20일(토)

- 10월 2, 9, 16(화 출발) 북알프스, 가미코지 1,198,000원-
- 3박4일(토 출발)[실속] 998,000원- [플렉] 1,098,000원-
- 4박5일 골프(화 출발) 998,000원-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준특급] 699,000원- ◆ [특급] 799,000원-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매주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 세미패키지 실속, 오전출발
- [실속(세미패키지)] 오사카, 나라, 교토 699,000원-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3박4일 899,000원-

무안 ↔ 다낭 직항전세기 [매주 화(3박4일) / 금(3박5일)]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념품, 배개, 비디오 상영

[골드] 다낭, 후에, 호이안 4일 599,000원- / 5일 769,000원-
[프리미엄] 다낭, 후에, 호이안 4일 799,000원- / 5일 969,000원-

무안 ↔ 제주도

◆ 2박3일(주중) 249,000원-, 2박3일(주말) 324,000원-

[추석 연휴] 무안 ↔ 돛토리 직항 전세기

9월 23일(일) ~ 9월 27일(목), 총 5회 운항

- 9/23(일), 24(월) 2박3일 998,000원(ALL 포함)
- 9/25(화), 26(수), 27(목) 2박3일, 3박4일 639,000원-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9월, 10월(매주 월, 월, 목, 금 출발)

- 대만, 화련, 지우펀, 야류, 서문정 3박4일 799,000원-
- 대만, 서문정, 지우펀, 야류 2박3일 629,000원-

낭만이 넘치는 지중해 크루즈 10일

(이탈리아,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 ◆ 광주 출/도착, ALL포함 4,600,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スケジュール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주2003-1호

◆ 공통조건: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비용 포함: 1인당, 국내항공 5천만원, 관광진흥법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보유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 / 전 지역 ◆ 상가 요금은 환불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인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기간 1인당 ◆ 예약시 계약서(승선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항공, 기차/가이드 봉사료, 선대관,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